

용재오닐과 다문화 아이들

다큐 '안녕! 오케스트라' 광주극장·CGV광주 터미널점

어색한 첫 만남. 아이들은 자신들을 가르칠 선생님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다. 서로 장난치고 재잘대느라 바쁘다. 정신 없던 식사 자리가 끝나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가 어눌한 한국말로 말한다.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이예요.”

그가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자 아이들은 중국 귀를 세운다. ‘와~’ 소리없는 탄성도 절로 나온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과 안산다문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1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영화는 MBC에서 방영된 동명의 4부작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TV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제 에미상 예술프로그램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책으로도 발간됐다.

용재 오닐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가는 영화는 무엇보다 유쾌하고 따뜻하다. 그리고 가슴 밑바닥을 건드리며 묵직한 울림을 준다. 영화 보는 내내 미소 짓게 되고, 울컥하게 된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처음 자신의 악기를 갖게 된 아이들은 키르키스탄, 중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 24명. 각기 다른 국적만큼 다른 개인사를 갖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다. 피부색 때문에, 부모의 국적 때문에 받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는 무엇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아이들의 슬픔과 기쁨을 몸과 마음으로 공유하는 용재 오닐의 존재다.

장예를 가진 전쟁 고아였던 엄마를 입양한 미국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용재 오닐 역시 미국에서 생활하며 그런 차별을 솔하게 겪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났게 아닌데 차별을 받는 아이들. 하지만 머리색은 바뀌어도 유전자는 바꿀 수 없기에 그는 음악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힘을 주려한다.

“음악은 말이 필요 없다. 설명이나 묘사도 필요 없다. 누구든 다가가면 된다.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 같은 한사람이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속에는 언제나 있다. 음악을 통해 어려움에 대처하고, 엄마 아빠는 만들어줄 수 없지만 함께할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는 사실담정을 고용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첫 무대를 소개할 때 등 여러차례 눈물을 보인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독인다.

“너희가 겪은 일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니들 책임이 아니다. 이즈 오케이. 선생님도 같은 상처가 있지만 괜찮다”고

게이름도 제대로 모르던 아이들이 점차 화음을 만들어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감동적이다. 3개월 후 첫 미션, 용재 오닐이



이끄는 ‘디토 앙상블’의 공연 무대에 선 아이들은 ‘작은별’을 연주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환희의 송가’에 이어 열린 연주회 ‘엄마의 자정가’는 연주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늘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엄마가 편히 쉬 수 있도록 자정가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담긴 연주회였다.

용재 오닐의 ‘섬집 아기’ 솔로에 이어지는 아이들의 합주와 각국의 언어로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부르는 ‘작은별’은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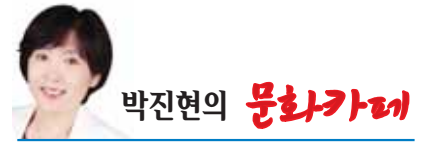
영화 내내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또 다른 선물이다.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 ‘섬집 아기’를 비롯해 파가니니의 곡 등은 OST음반으

로도 나와있다.

“아이들은 수많은 역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 음악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아이들에게 규범과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열심히 노력하게 할 것이며 늘 결과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다큐 감독이 용재 오닐의 ‘주목같은’ 대사를 편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 뿐 아니라 관객 모두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다. 광주에서는 광주극장과 CGV광주 터미널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1932년 1월 1일은 상하이 시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상하이에서는 처음으로 영·미 영화를 상영하는 ‘캐타이 극장’(Cathay Theatre·1082석)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날 개봉작 ‘Free Soul’과 함께 공개된 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아르데코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과 경소 접하기 힘들었던 외국영화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지금, 캐타이 극장은 여전히 ‘핫 플레이스’(hot place)다. 갈색 벽돌로 지어진 외벽과 금박으로 마감된 ‘CATHAY’ 로고는 그대로이

으로 쓰이다 지난 1959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지난 2002년 인근에 고가도로가 추진되면서 사라질 뻔 했지만 근대유적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대형지게차 59대를 동원해 건물 전체를 하루에 5cm씩 60일동안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난 2003년 클래식 전용홀로 재개관한 것이다.

어디 근대유적지뿐인가. 상하이에서는 빈 건물과 공간을 창작 공간으로 살려낸 현상들이 많다. 방직공장을 예술촌으로 바꾼 M50과 도축장을 디자인 클러스터로 살려낸 1933 라오창팡이 대

‘5cm의 기적’을 믿나요?

지만 산뜻하게 변신한 극장 안에선 할리우드 최신작이 상영되고 있다.

캐타이 극장은 상하이의 도심 재생 사례 가운데 하나다. 1950년대 유대인 출신의 빅토르 사순 재단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하이시는 1990년대 초 극장을 근대유적지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내부공사를 거쳐 지난 2003년 재개관했다.

당시 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상하이시는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공간이 되길 원했다. 할아버지의 단골 데이트 장소에서 그의 후손들도 ‘달달한’ 로맨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하이 음악당(이하 음악당) 역시 캐타이극장과 닮은 꼴이다. 지난 1930년 2층 규모의 유럽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은 영화관

표적이다.

최근 ‘광주폴리(folly) II’ 프로젝트의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폴리 II’에서는 총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변, 광주공원 등에 8개의 조형물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광주폴리는 광주시가 도심재생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세계적인 거장들의 조형물을 금남로 등에 설치한 프로젝트. 하지만 ‘폴리 I’의 일부 작품은 주변과의 부조화 등으로 값비싼 예술단지 신세가 됐다.

물론 유명 건축가들의 화려한 ‘작품’들은 착착한 도시에 활력을 준다. 하지만 광주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결여된 조형물은 자칫 도시를 망칠 수 있다. 상하이의 ‘지혜’로 이뤄낸 음악당의 부활이 값진 이유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국적으로 차별의 아픔 간직한

일본·프랑스 등 10개국 24명

가슴으로 연주하는 꿈의 하모니

희망을 연주합니다



‘유목동물+인간’

인간과 자연 ‘공존의 삶’ 허진 교수 초대전 21일까지 갤러리 아크

허진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는 남종화의 원류인 소치 허련의 화풍을 이어받아 전통의 활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화가다. 그는 운림산방의 화맥을 5대째 이으면서 한국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선보이고 있다.

필묵으로 동시대 현대미술이 접근하고 있는 예민한 주제를 풀어내는 한국화가 허 교수의 개인전이 열린다. 갤러리 아크는 21일까지 허 교수를 초대해 ‘신비한 익명의 세상(Mystery Anonymous World)’전을 연다. 허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과 현대를 결합해 현대인과 삶에 대한 애정, 관심을 세련된 감각의 필체로 보여준다.

‘익명인간’ 시리즈에서는 익명의 사람들과 현대 사회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그리고 동물들이 한 화면 안에 자리한다. 동양적 산수 바탕에 문명의 단편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현대인에게 분주하고 번잡한 오늘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동물들과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유목동물+인간’ 시리즈.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을 그리워하는 인간과 동물들의 모습이 닮았다고 메시지를 건넨다.

서울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허 교수는 허련의 고조 손이며 근대 남종화의 대가인 남봉 허건의 장손이다. 개막식은 5일 오후 7시다. 문의 062-671-1238/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 꿈나무 모집

해금·가야금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제4기 방과 후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가야금과 해금이며 강의는 월·수 오후 6시 30분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강사는 송

정량(광주가야금연주단원)씨와 조다영(전 전남도립국악단원)씨다.

강의는 2004년 1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각 강좌당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12주에 5만 원이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 한 건축사 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일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일지.kr